

한국발명진흥회(세종지부), 외국인 창업자에 지식재산의 날개를 달다 -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사진설명 : 외국인 창업자 워크숍 기념촬영.>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는 '외국인 창업자 대상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외국인 스타트업센터」의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창출을 지원하는 최초의 외국인 대상 지식재산창출 시범사업으로, 총 5건의 상표 출원과 2건의 로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준환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외국인 창업자들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사업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외국인 창업자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